

제주 4차 산업혁명 핵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재도전

정부 1차 선정 부산시 포함 지자체 다중 지정 검토 제주, 탈락 수모 극복 2차 규제자유특구 신청 결정

정부가 블록체인과 자율주행차·수소차 규제자유특구 다중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1차 공모에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했으나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블록체인과 자율주행차·수소차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다중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7~8월 예정된 규제자유특구 2차 공모에 블록체인 특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국내전략 펀드와 단계적 암호화폐(ICO)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15일 우선협의대상에서 탈락했고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오는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내달 중순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 24일 구체적인 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해 지역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및 세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차 공모를 통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산업과 관련 규제 특례 및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기업

을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블록체인 서비스모텔 발굴과 확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마련을 통해 산업진흥, 인력양성, 투자연계 등을 통한 산업기반을 조성,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박영선 장관이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와 수소차, 블록체인 특구는 다중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부산시는 현재 1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6~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어 “규제자유특구안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특구안에서만 운행·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구의 지역에서도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규제자유특구 다중 지정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장을 찾은 도민·관광객들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수월봉 주변 트레일에 나서고 있다. 수월봉 트레일은 영알길, 당산봉, 차귀도 등 3개 코스로 나뉘어 운영중이다. 특정 시간대에는 전문가와 동행하는 전문가탐방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개막

결공·해녀·가수 현숙 공연 개최식 축제 열기 25~28일 3개 코스 전문가탐방·체험 등 풍성

화창한 날씨 속에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가 25일 마을주민·관광객은 물론 도내 각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해경 고산출장소 앞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개막식전행사는 결공, 색포폰 연주, 난타공연, 해녀공연, 가수 현숙의 축하공연으로 바통을 이어가며 열기를 지웠다.

식전행사에서 환경면 민속보존회 걸공팀이 신명나는 무대로 대회의 서막을 장식했다. 이어 한림수협색포폰동호회의 고운 선율이 행사장을 물들였다.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옷뜨르난타동아리와 고산리민속보존회의 힘찬 율림과 함께 최근 국내·국제무대를 오가며 그 실력을 인정 받고 있는 고산해녀공연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호녀가수' 현숙은 제주명예홍보대사로서 제주에 대한 애뜻한 애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히트곡을 열창했다. 특히 마을주민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어진 개막식에서 강만생 제주도 세계지질공원트레일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주도지질공원 탐방을 위해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으며 제주자연과 지질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다"며 "내년 9월 세계지질공원총회가 제주에서 열리며 세계 전문가 1500명이 방문, 고산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월봉 트레일은 영알길, 당산봉, 차귀도 등 3개 코스에서 진행 중이다. 영알길은 화산탄과 진지동굴 등을 탐방하는 해안 코스이며, 당산봉은 울레길과 가마우지 서식지를 만

날 수 있는 코스다. 차귀도 코스는 파워보트를 타고 들어가 탐방할 수 있다. 파워보트는 행사기간 할인요금(양복 성인 1만원·소년 5000원)이 적용된다.

또한 지질·생태분야의 전문가와 동행하는 전문가탐방도 매년 열리며 인기가 있다. 첫 날, 류준길 박사의 지질탐방에 이어 남은 일정은 ▷26일 오전 11시 역사·문화 고재원 ▷27일 오전 11시30분 지질 송시태, 오후 2시 곤충 양경식 ▷28일 오전 11시30분 생태 김완병, 오후 2시 지질 류준길 등이다. 접수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자전거 발전기 체험, 나만의 환경액자 만들기, 비눗방울 고추장·된장·재생비누 만들기, 자연순환체험, 전통혼례 및 복식체험 등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백문기자 haru@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도 '아동수당' 이달 25일 첫 지급

도내 6세 미만 3만4036명에 매월 10만원

6세 미만 아동 3만여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일자로 '아동수당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5일 처음으로 도내 모든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만 3만4036명의 아동에게 41억4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올해 말까지 총 431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상위 10%를 제외해 월 10만원씩을 지급해왔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해 탈락했던 경우엔 관련 공무원이 아동수당을 직권 신청해 4월부터 신규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렇게 탈락 후 신규로 수당을 받을 때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을 소급(총 40만원)해 지급

받는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7천여명의 만 6세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표성준기자

제주내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711-6544

2019 제주도세계지질공원 수월봉트레일 개최를 축하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도민과 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신발 끈을 동여매고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행동과 실천을 통해 알찬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